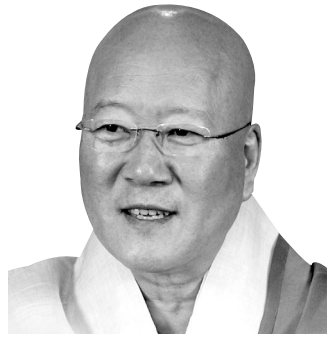


보살은 상을 여의어 모양이 없다

지공이 말하기를, '세간을 벗어난 눈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대승의 법약을 잘못 먹게 된다.'고 하였다. 지금 일체시(一切時) 중 행주좌와(行住坐臥)에 다만 무심(無心)을 닦는다면, 분별할 바도 없고 의지할 바도 없으며 머물러 집착할 바도 없어서 하루 종일 입문등등(任運騰騰) 하여 마치 어리석은 사람같이 될 것이다.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23)



범어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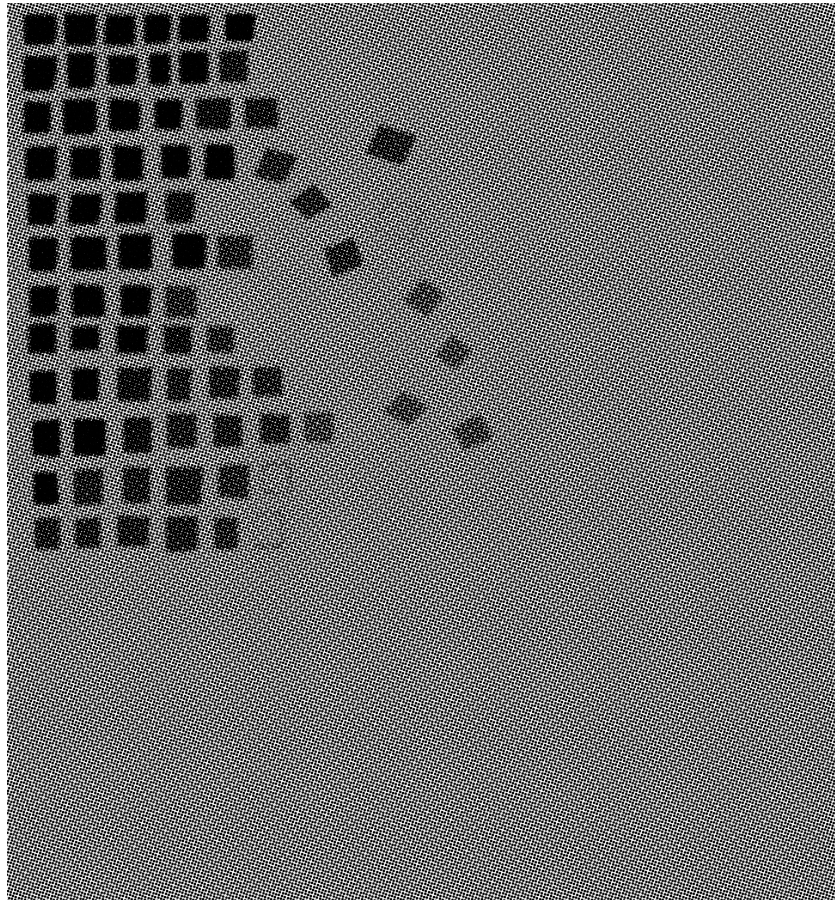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세간의 일은 언제나 이분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출세간의 불법은 불이법(不二法)이어서, 언제나 주관이나 객관이나 하는 분별로부터 벗어나 있다. 따라서 눈 밝은 명안종사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불법을 이분법의 알음알이로 따지는 나쁜 습관을 떨치게 만들어준다. 만일 이런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 불법을 밝히려고 해봐도, 결국 분별망상 속에서 불법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전도몽상 속의 일일 뿐이다. 이런 사람은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음알이만 커져서, 대승의 법약이 오히려 술찌기처럼 넘쳐나는 법상(法相)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다. 반면 바른 스승을 만나 바른 지도를 받으면, 모든 알음알이를 내려놓고 하루 종일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곳에서 오직 무심을 닦아 근본에 계합해 들어간다. 그러면 본래 마음고양에서 안심입명하기 때문에, 따로 분별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으며 또한 머물러 집착할 것도 없어진다. 어디를 가든 그 자리요,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이미 본래부터 좌(坐)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사람은 다만 흐름에 맡겨 자재하고 있지만, 밖을 향한 시비분별이 꼭 끊어져서 남이 볼 때는 어쩌면 바보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는 무위(無爲)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필요할 때는 또 전광석화처럼 대기대용(大機大用)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무심을 닦는다면 분별도 집착도 없다. 마음이 바위덩이처럼 튼튼이 일체 법이 그대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상에 집착하여 조작하려는 생각만 끊어지면 장애 받고 안 받고 도무지 흔적이 없어져 하되 한 바가 없는 자유로운 삶이 펼쳐진다.

을 향해 치닫는 업식이 그쳐지지 않은 사람은 좁이 썩어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 천지를 쓰다나면서 온갖 일에 간섭해야만 직성이 풀리니, 마음이 잠시도 쉬지를 못하여 무심을 닦을 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여기저기 부지런을 떨며 다니면서 잡다한 지식을 배워 머릿속에 꾸역꾸역 쑤셔 넣는 것을 공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제대로 발심한 사람은 한 생각 들이켜 선지식을 찾아뵈고 무심에 착안하여 방하착(放下着) 한다.

삼계의 경계를 벗어남을 일러 부처가 세간에 출현했다고 하며, 번뇌에 물들지 않는 마음을 일러 무루지(無漏智)라고 한다. 인간과 천상에 태어날 업을 짓지 않고, 지옥에 태어날 업도 짓지도 않으며, 나아가 일체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서 어떤 인연이 와도 불생(不生)이면, 곧 이 몸과 마음의 자유인이 된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도 결국 한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마음에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생이 없음[無漏]'이라고 한다. 마음이 경계 따라 새어나오면 곧 번뇌가 된다. 그러나 그 번뇌조차도 자성의 묘용(妙用)임을 깨달으면, 즉시 번뇌가 보리로 화(化)한다. 일거수일투족, 한 마디의 말, 한 생각이 모두 일심(一心)의 나뭇 가지가 없음을 분명할 때, '무루지'가 현전하는 것이다. 일체 경계에서 상이 없으므로 허망한 생각이 없어 나지 않으며, 만법이 오직 한 마음의 드러남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기에 매사에 걸림 없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불생(不生)이 아니라, 뜻에 따라 생(生)할 뿐이다. 경에서 '보살에게는 의생신(意生身)이 있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의생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몸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생기는 몸을 말한다. 보살은 상(相)을 여의어서 모양이 없다. 그래서 자비심을 일으키는데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몸을 나눈다. 보살의 경계에 들어가면 생각대로 태어나는 것이다. 육도 만행하는 보살로서는 경우 따라 역행 보살이 되는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악업에 물들지 않는 위신력을 지녔기 때문에, 능히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무심을 모르고 상에 집착하여 조작하는 것은 모두 마구니의 업에 속한다. 나아가 정토(淨土)의 불사(佛事)를 이루어라도 모두 업을 짓는 것이니, 이를 일러 부처의 장애(佛障)라고 한다.

마음이 모양이 없는 줄을 알지도 못하고 늘 경계 따라서 집착을 일삼으면, 그대 다 마구니의 속박을 받는 일이 된다. 나아가 염불로써 선정을 익히더라도, 만일 마음으로 조작함이 있으면 곧 업을 짓는 일이 되어 공부에 장애를 받는다. 누구 다른 사람이 장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착각하여 부처를 조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욕상욕이 되어 본래 부처를 가리는 것이다. 다만 상에 집착하여 조작하려는 생각만 끊어지면, 장애 받고 안 받고 도무지 흔적이 없어져 하되 한 바가 없는 자유로운 삶이 펼쳐진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99



부모와 스승, 그리고 삼보에 효순(孝順)하며 지극한 진리에 효순하라.

〈범망경〉

약관을 기억하라

사실, 그래서 안 되는데 누구나 잘 그러는 것 같다. 보험할 때의 일 말이다. 정말 이것저것 꼼꼼히 생각해 보고, 알아보고 난 뒤에 결정해야 하는데... 주변의 친지 중에 보험을 모집하는 분들이 있게 되면, 권유에 못 이겨서 그냥 들고 말 때도 있다. 정작으로 중요한 약관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을 잘 살펴보지도 못하고서 말이다.

또한 약관을 읽어보고서 가입하더라도, 이내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많은 것 같다. 내가 어떤 조건으로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매우 유사한 경우가, 수계(受戒)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수계는 계를 받는 일이고, 그 계의 조목을 잘 지키겠노라 부처님과 약속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당연히 그 계율의 조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잘 알아야 함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렇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

절마다 가끔은 보살계를 수계하는 법회를 연다. 전계대화상(傳戒大和尚)으로부터 계율을 받을 때, 우리 모두는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서를 한다. 하지만 도대체 지켜야 할 그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나 있을까? 오게나 심신계와 같이 짧은 계율은 외울 수 있지만, 보살계와 같이 총 58개나 되는 긴 계율의 경우에는 그 조항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가 계율을 자주 자주 읽어보고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알지 못한다면, 지킬 수도 없을 것이다.

하필 효라니?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보살계는 〈범망경〉 하권에서 설해되고 있다. 계율을 설하는 계경(戒經)이라서 그런지, 또 새로운 이야기가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보살계를 제정하신 것이라 말하는 것 아닌가.

연기의 이치를 관찰하셨다는든 혹은 〈화엄경〉을 설하셨다는 이야기는 흔히 들어왔지만, 계율을 제정하셨다는 이야기는 잘 듣지 못하던 이야기다. 그러니까 교단 구성원들이 어떤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그런 일은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계율을 하나하나 제정하셨다는 종래의 정설

(定說)과는 다른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또 있다. 그 보살의 계율이 무엇인지를 연이어서 설명하는 말씀이 특이하다. "부모와 스승, 그리고 삼보에 효순하며, 지극한 진리에 효순하라"고 하신다. 효라? 하필 효인가?

다 알다시피, 효는 유교의 윤리규범이 아닌가. 왜 여기서 효가 나올까? 물론, 우리는 알고 있다. "부모님께 효순하라"고 할 때의 효가 어찌 하필 유교에만 있는 것이겠는가. 인도의 힌두교에서도 있고, 인도 불교의 여러 경전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어찌 보면 인류 보편의 윤리 감정이 아닐까 싶다. 자식이 부모님을 잘 모신다는 것은 말이다.

그런 맥락에서의 효라하면 무엇이 문제일까. 내가 '가족윤리로서의 효'라고 이름한



그림 · 박구원

것도 그런 것이다. 그러한 효는 분명 우리 불교의 경전에서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초기경전인 〈선생경(善生經)〉에서이다.

그런데 여기 〈범망경〉에서 설하는 '효순'의 의미는 다만 그러한 '가족윤리로서의 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효순의 대상에 '부모'가 있는 만큼, '가족윤리로서의 효'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효순이라는 말이 쓰이는 맥락을 살펴보면, 그 말의 뜻에는 다만 '효도'만의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수순(隨順)한다'의 의미를 담고 있다. "보살은 효순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고 설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효는, 이제 모든 중생을 향하고 있는 '열린 개념'으로 쓰여야 한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걸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진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이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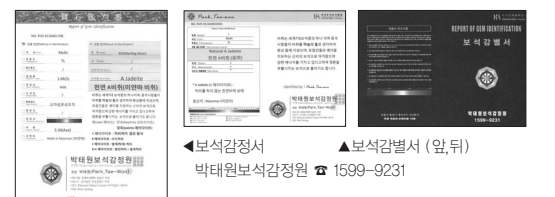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품에 지냈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격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생의〈동의보감〉에도 약적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 C비취 : 원석에 염색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 격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중(흰옥) 가액 ₩60,000원